

[5 차시] 여성과 몸

[학습내용 -1] 몸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

1) 몸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들

몸은 일련의 사회적 실천의 장이다. 몸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생산 유지 제시된다. 사회생활에서의 체면유지, 낙인 찍기와 같은 다양한 현상이 일어난다. (고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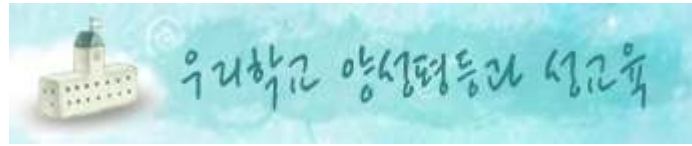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몸은 공유되는 수많은 몸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집합적으로 실현되는 생리적 잠재성이다. 수많은 몸 실천을 통해서 개인은 훈련되고 훈육되고 사회화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회나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걸음걸이는 훈련과 실천의 결과이다 (모스 인류학 연구)

몸은 일상적 실천의 중심이다. 사회적 실천과 관련된 아비투스(Abitu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변화하는 일상의 경험들 속에 있는 몸의 성격상의 중요한 차이들을 보이는데 사회적 아비투스(Abitus)와 관련해 직업집단들은 차이를 보인다. (부르디외)

2) 몸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들

몸을 하나의 상징체계로 개념화한다. 몸을 사회적 의미 상징의 담지체나 운반물로 정의한다. 상징주의와 연관된 몸 의례를 위한 몸 준비 희생 통과의례를 통한 몸의 문화적 변형. 의례 엄숙한 공식 및 종교적 실천에서 공유된 의미들과 문화를 전달하는 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체는 사회의 조직화와 탈조직화를 나타내는 메타포들의 중요한 근원지 무질서해진 몸들은 마술적 병이 엄습한 몸들은 무질서해진 사회의 표현이다. 유태교의 돼지고기 금지는 위생차원의 공중건강정책이 아니라 되새김질하지 않는 존재가 갖는 범주적 혼란에 대한 불안 표현 (더글러스, Mary Douglas, 1966 1970)

3) 행위 /타고난 행동의 이분법과 문화 /자연의 이분법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걸음은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척추의 반사작용이지만 더 고차원적으로는 그 사람의 걷는 방식 즉 그의 걸음걸이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수 있다.



[5 차시] 여성과 몸

[학습내용 -2] 페미니즘의 몸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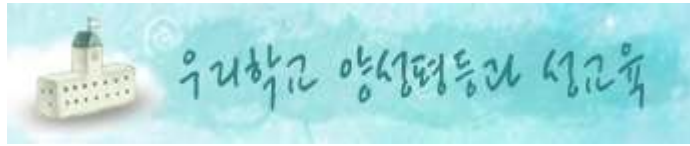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 페미니스트인 라커(Thomas W. Laqueur)는 ‘성만들기’(Making Sex, 1990)에서 몸을 권력 관계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고전시대와 중세의 몸 이론은 하나의 몸과 두 개의 젠더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성을 단지 남성의 반대형상으로 간주하고 여성의 성기는 남성성 기관의 역형상으로 본다. 라커는 여성의 몸을 과학적 관찰과 실험이 아닌 사회적 역사적 변화의 결과물로 설명한다.

- 그로츠(Elizabeth Grosz)는 ‘변화무쌍한 몸’ (Volatile Bodies 1994)에서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으로 몸에 미친 영향력을 논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멋진 몸은 멋진 사람이라는 등식의 당대 문화의 미학원리를 거부한다. 패션산업과 소비주의는 현실의 여성들이 성취할 수 없는 몸의 이상형을 만들어낸다. 패션산업에서 통용되는 포르노적 여성이미지들은 지속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통제하는 가부장제적 권력관계들의 토대를 강화하고 지지한다. 사회구성적 시각을 가진 남성학도 마찬가지로 남성적 힘의 신화를 지지해온 힘=스포츠기량=남성다움의 등식을 비판한다.

- 데리다(Jacques Derrida)와 해체철학자들과 라캉(Jacques Lacan)과 같은 정신분석학 전통에 의존한 페미니스트 크리스테바(1982)와 이리가레이(1985)는 몸을 문제 있는 텍스트로, 사회의 권력관계가 해석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육적 담론으로 다루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몸의 텍스트에 대한 비판은 사회속의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이다.

- 사회구성론자들은 성경험, 고통, 사회적 개인적 질병의 경험이나 노화의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몸의 사실성과 소여성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노화의 과정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해도 생물학적 과정으로서의 노화- 육체적 능력의 감소, 흰머리의 등장, 피부의 손상, 뼈 구조의 약화, 정신능력의 감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자연적 몸에는 사회적 역사와 문화적 이해가 투입된다. 몸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연과 문화를 대립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며 서로 융해되어있다.



[5 차시] 여성과 몸

[학습내용 -3] 여성의 몸과 가부장제 권력

1) 거식증은 1860년대 후반 프랑스와 영국에서 등장한다. 거식증은 여성 특유의 질병이며 흔히 15세에 시작되어 25세 이전 젊은 여성 특유의 증상이다

- 거식증은 인간의 몸- 크기 무게 몸짓 몸가짐- 이 적절함에 대한 문화적 기준에 맞추어 형성되고 있는 가란 질문 제기이다. 먹기는 기본적인 몸의 기술이고 본능적인 생리적 기능을 갖지만 상당부분 문화에 의해 매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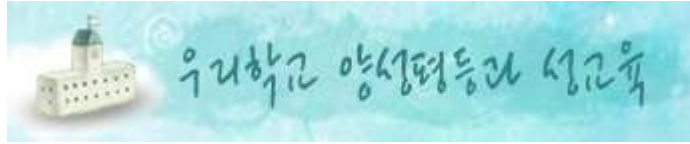
-거식증 진단

페이너는 25살 이전의 발병하며 적어도 25%의 체중감, 음식과 먹는 것에 대한 왜곡된 태도, 거식증을 설명할 만한 의학적 질병을 앓았던 적이 없음, 다른 중요한 정서적 정신의학적 장애가 없음, 생리불순, 느린 맥박, 과잉 활동성, 폭식 후 토하기, 게우기 등 적어도 두 가지 증상이 발견되면 거식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한다. 팔머는 이를 섭식혼란 증후군이라고 칭했으며 체중손실과 월경 장애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크리스프와 톰즈, 러셀은 심리적 기준으로 '살찌는 두려움 때문에 날씬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 거식증증상을 통해 여성의 본질은 그의 외면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외형은 그녀의 성격이고 상징이다. 지나치게 살찐 여성은 단순히 뚱뚱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여성이며 제어되지 않는 몸은 억제되지 않은 도덕성에 대한 진술 혹은 언어이다. 여성의 몸의 통제는 그의 인격의 통제이며 합리적인 남성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공적 질서의 이해관계에 맞게 몸에 권위 행사를 한다. 거식증은 여성의 몸에 대한 구속이라는 보편적 개념에 의거해 검토되어야 한다.

2) 몸에 대한 구속 -코르셋

19세기의 코르셋은 유한계급여성의 상징이었다. 코르셋을 착용한 여성은 육체노동을 할 수 없었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약화시키거나 억제하는 코르셋은 사실상 여성에게 강요된 복종과 남성의존성을 물리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역설적인 복종인데 여성의 아름다움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성욕을 부인하며 성교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임신가능성을 제한 임신기간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19세기 코르셋은 그런 속박을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여성주의적 개혁의 표적이었다.



[5 차시] 여성과 몸

3) 다이어트

- 20세기의 규칙적인 다이어트 운동을 통한 날씬함의 열풍은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한 아름다움의 규범들에 여성들이 순응한 결과이다. 가부장제적 가치와 제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순종성의 결과이고 사회화를 통해 날씬함이 가치 있고 존중 받는다는 생각을 수용한다.

- 오늘날 날씬한 여성들은 그 목적을 과거처럼 영구적인 배우자 찾기에 두지는 않는다. 음식산업과 약품산업의 광고에서 이제 날씬함은 개인의 행복, 사회적 성공, 기회적 인정과 가능성이라는 자기도취적 목표에 따라 조율된다. 과거처럼 코르셋의 인위적 도움이 아니라 후기자본주의의 윤리인 계산적 쾌락주의에 둔다. 날씬함은 남녀모두에게 성적 매력의 지배적 규범이다.

- 20세기의 다이어트와 운동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연결되어 있다. 남성들의 방해 없이 거리에서 조깅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이며 정치적 권리의 표현이다. 조깅과 살빼기는 의료비용을 절감한다. 국가이익을 위한 몸의 합리화 과정이며 소비문화의 이익을 위해서 여성의 성적 매력증대

- 푸코의 지식과 권력론에 의거하면

1. 주관적 차원에서 여성의 개인적 자유의 증대, 개인의 자기감시와 훈육과정 사회의 전반적인 의료화 과정의 한 부분
2.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용인될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회의 성애화

-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의 미적 기준이 지배하는 소비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상충적인 기대 속에 놓여있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됨으로써 욕망을 억압한다.